

기아차 올 뉴 K7 시승기

안전하고 단단한 첨단기술 총체... “반할만하네”



지난 16일 기자가 탄 신형 K7 차량이 화순 능주IC 앞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2016년 신형 K7의 첫 인상은 당당하고 다부졌다. 기아차의 기술력과 자신감, 디자인 감각을 한껏 자랑하는 명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화순일원을 왕복하는 약 56km의 코스에서 진행된 시승에 앞서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봤다. 기아차의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적 디자인이 가미된 ‘움직임 세로바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낮과 밤에 모두 점등되는 ‘Z’ 형상의 독창적인 ‘LED 주간주행등’은 차별화된 고급감을 연출했다. 아울러 볼륨감 넘치는 앞범퍼는 강인한 이미지를 준다.

차에 올라타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이 돋보인다. 이번 시승회를 위해 준비된 3.3 GDi 모델에는 ▲19인치 다크스퍼터링 휠 ▲B필라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 웨이스트 라인 몰딩 등 디테일한 고급 요소를 추가해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올 뉴 K7은 미끄러지듯 조용히 출발한다. 고배기량의 준대형차답게 ‘부릉’하는 미세한 소음만 살짝 느껴질뿐 시동이 걸린 후에는 마치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 처럼 조용하고 진동 역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나와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고 처음 만나는 둔턱을 넘어왔다. 거의 정속으로 둔턱을 넘어왔음에도 충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급 대형세단 부럽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줬다.

시내도로를 지나 제2순환로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달리기 테스트에 돌입했다. 서서히 가속페달을 밟자 알파일이 올라가며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했고 시속과 관련없이 무리없이 가속됐다. 290마력(ps)의 출력과

도서관에 앉아 있는 듯한 승차감 차량 주변 360도 모니터링 시스템 11.5km/ℓ...연비 이전보다 향상

■ 시승차량 사양

트림명 : 3.3 GDi노블레스스페셜 + 풀옵션

가 격 : 44,050,000원

연비(19인치 타이어) : 복합 9.7km/ℓ

(도심 8.4km/ℓ, 고속 11.8km/ℓ)

35.0kgf.m의 토크를 내는 엔진은 지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힘을 낸다.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한결 편리한 운전을 가능하게했다. 운전자가 실내에서 차량 외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디지털 영상 전송 방식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하는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AVM)’이 적용돼 좁은 골목길을 지나거나, 주차를 할 때 유용하다.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조그만 지나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행 도중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경고 등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다. 눈길을 돌리니 오른쪽 후미에서 다른 승용차가 고속으로 접근 중이었다. 기아차의 자율주행 기반 기술 브랜드인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기술들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올 뉴 K7에는 ‘후측방 충돌회피 지원 시스템(Smart BSD)’이 탑재돼 후측방 시야 사각지대 및 고속 접근 차량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경보를 해준다. 또 차량 속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초과 운행 시 자동으로 감속하는 ‘고속도로 자동 감속 기능’이 추가됐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기술의 요체다.

연비도 좋아졌다. 기아차의 자료에 따르면 이 모델은 11.5km/ℓ(17인치 타이어)의 복합연비를 달성, 이전 모델(구연비 기준 11.3km/ℓ) 대비 경제성이 향상됐다.

시승구간 전반에서는 주로 주행성능 확인에 중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약 56km 거리를 주행한 뒤 확인한 연비는 13.5km/ℓ를 기록해 고속도로 공인연비(11.8km/ℓ)를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시승을 마치고 느낀 신형 K7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준대형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올해, 신형 K7은 경쟁자들을 떨치지 못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83.94 (-4.36)	금리 (국고채 3년) 1.44% (0.00)
↓ 코스닥 623.49 (-11.46)	↑ 환율 (USD) 1227.10원 (+10.50)

우울한 청년세대...1월 실업률 9.5%

16년 만에 최고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50만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54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9000명 증가했다.

작년 1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5000명 늘어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33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을 뿐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일제히 개선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58.8%로 0.1%포인트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매년 1월 수치를 비교해도 2000년 1월 11.0%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연합뉴스

66주년 보해, 임직원에 사회적기업 제품 선물



보해양조주는 회사 창립 66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 전 임직원에게 선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18일 창립 66주년을 맞는 보해양조가 임직원에게 전달한 선물은 ㈜정남진판매 사업단에서 제작한 배게와 편백잎 추출물 등 편백 제품 세트다.

보해양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66주년의 취지를 살려 기업 간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입했다.

임직원 보해양조주 대표는 “보해양조가 66년 전통의 주류 명가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지역민들의 성원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익산국토청, 호남 국도 129개 시설 안전진단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이 호남지역 국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나선다.

17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낙석위험, 절개지 등 호남지역 국도 129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오는 19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되며 익산국토청과 민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여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세무사, 연구원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국영기업체 직원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교사, 교수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워너비빌 B10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